

» 2015 종계·부화업 결산

종계업 쿼터제로 수급조절 필요

— 악성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 면하려면 종계일반검정 필해야 —



이 종 응

본회 경영정책부 과장

답 고기산업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13년부터 시작된 종계입식 700만수 시대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공급과잉, 수급불균형 그리고 계열업체의 공격적인 투자와 과잉설비, 정부의 수급정책 부재, 미국의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금지 해제와 태국산 냉동육 닭고기 수입 추진 건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국내 닭고기 산업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올미년 종계부화산업에서 이슈화되었던 소재들을 되짚어 볼까한다.

1. 미국·영국발 AI 발생

미국과 영국 발 AI 발생의 여파로 올미년 새해부터 국내 원종계 도입이 무기한 지연되었다.

영국은 '14.11.14일, 미국은 '14.12.18일에 각각 AI발생으로 정부는 영국산(11.17)과 미국산(12.20)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5년간 원종계 수입국은 영국과 미국, 단 2개국에서 전량 수입되어 원종계 도입에 차질을 겪었다.

대안책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국가의 전면적 금지(Whole country)를 사태가 발생한 지역(Zone country)으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와 “브라질·호주 등의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을 통한 수입국의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국제정세와 정부의 미온적 반응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표 1. 2015년 원종계입식수

(단위 : 수, D-line 기준)

업체명	품종	수입국	상반기			하반기			소계	
			3	5	6	7	10	11		12
삼화원종	Rs	영국				39,000			39,000	
한국원종	AA	프랑스				20,000			20,000	
(주)하림	Hu	프랑스	14,000	11,000			15,000	15,000	55,000	
(주)동우	Hu	프랑스			12,000				12,000	
사조원종	IR	프랑스						12,000	10,000	22,000
소계			14,000	11,000	12,000	59,000	15,000	27,000	10,000	114,000

* 12월은 수입계획(사조원종 인디언리버, 영국)임.

표 2. 육용종계 수입실적

(단위 : 천수, 우기준)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평균
103	100	-	160	40	345	85	-	-	591	142

* '15년은 12월 수입계획 포함임

표 3. 종계분양실적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2015	428	495	839	755	721	612	710	571	484	605	413	407	7,040
2014	275	360	560	711	631	479	493	683	898	857	626	506	7,079
2013	315	385	764	825	598	401	505	775	713	810	618	379	7,089
2012	356	672	870	718	496	340	437	490	628	815	493	272	6,587

* '15.11~12월은 추정치임

하반기 국내 원종계사의 공급량 감소를 우려한 일부계열사는 AI 비발생국인 프랑스에서 종계를 수입하였다. 금년 7월부터 12월동안 수입한 육용종계의 총수수(우기준)는 591천수로 최근 10년간 수입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표2 참조]

이번 미국과 영국발 AI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종계산업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 계기로 국산종계의 확보 또는 수입국의 다변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교훈을 남겨줬다.

참고로 미국은 11.19일 영국은 12월초(예정)에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을 통해

수입허용국가로 편입되었다.

2. 육용종계병아리 최고가 갱신

미국과 영국에서 촉발된 AI로 국내 종계공급에 우려가 심화되었다. 연장생산을 통해서도 공급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원종계업체의 주장과 계열업체의 가수요가 맞물리면서 7월부터 육용원종계 3사(삼화원종·한국원종·청정원종)는 종계병아리 가격을 역대 최고가인 5,500원으로 인상했다. 본회 종계부화위원회는 원종계 3사와 가격안정화를 위한 합의점 도출에 노력했

표 3. 실용계병아리가격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2015	620	720	720	709	506	422	320	320	320	320	320	320	468
2014	433	545	798	745	433	442	333	395	620	520	545	520	527
2013	353	620	620	564	498	570	553	476	695	720	720	542	578
2012	333	508	620	420	320	420	376	442	483	320	320	320	407
2011	320	620	820	808	387	320	320	387	808	820	820	753	599

지만 기대와 달리 기존 4,500원에서 무려 22.2%가 인상되었다. 기업논리와 시장경제논리로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종계와 사료 가격은 작년수준과 동일함에도 단지 미래에 대한 공급부족의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 합당한 처사였는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약 704만수(국산 645, 외산 59)의 종계가 입식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과잉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3. 육용실용계 병아리 최저가 갱신

육용종계 병아리는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육용실용계는 최저가가 지속되는 기록을 낳았다.

금년 1분기 AI역학조사로 대형 부화장 일부가 폐쇄되면서 720원의 고가가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 종계의 과잉입식과 생산성 개선에 따른 실용계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하반기(6~11월, 5개월 연속) 병아리 가격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300원대를 하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둘둘치킨’, ‘치킨뱅이’, ‘깐부치킨’ 등에서 백세미를 치킨원료육으로 사용하면서 육계 6~7호를 대처하고 있는 것도 병아리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4. 수급조절기능 부재

본회는 국내 수급을 감안한 종계적정입식수를 650~680만수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13년부터 종계입식열기와 계열업체간 치킨계임으로 연간 700만수의 종계가 입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력히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정부는 계열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계열업체가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정부의 요구와 기대에 흡족할 성과를 도출하기는 힘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축종·품목별로 수급조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년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계감축, 종란폐기, 병아리 랜더링 등 다양한 사업(안)이 제시되었다. 이중 병아리 300만수를 랜더링하는 사업이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추석이후로 시행하였다. 병아리 300만수를 약 4개월(9~12월)간 시행한다하여 근본적인 수급조절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계열업체가 9~10월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육용종계의 조기도태로 1,778천



수를 감축한 것이 연말 병아리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크다.

하지만 계열사에 종란을 납품하는 종계장은 타의적으로 종계를 조기도태하여 수익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가족농 사육주 권 희생과 수급정책방안으로 농가 중심의 자율적 종계쿼터제 도입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5.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개정 추진

정부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종란을 통해 난계대질병이 후대병아리로 이행되는 것을 막아 병아리의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다. 현행 2개의 검사 질병(가금티푸스, 추백리)을 4개(가금티푸스,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MG,

MS))의 질병으로 확대하고, 검사대상 축종에 순계를 추가하며, 검사주기를 확대 하는 등의 현행보다 더욱 까다로운 개정방안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에서 MG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MS 질병의 질병전파력이 빨라 EU와 일본의 경우 종계에 MS백신을 조건부로 허용하여 근절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개정안이 국내 닭마이크로플라즈마병의 근절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단, 닭마이크로플라즈마는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업계에서는 난계대 질병의 근절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정안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양계**